

http://dx.doi.org/10.17703/JCCT.2018.4.1.201

JCCT 2018-2-24

간호사 행복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Domestic Research Trends on Nurse Happiness

이선희*

Seonhye Lee*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연구된 간호사의 행복에 관한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간호사 행복의 주요 특성과 추후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검색데이터 베이스(NANET, RISS, KSI-KISS, DBpia)에서 '간호사'와 '행복' 또는 'nurses' and 'happiness'로 각각 조합하여 발표된 학술논문 중 온라인상에서 검색된 총 8편을 선정하였다. 2013년 이후부터 간호사 행복 논문이 출판되었다. 주요 연구결과, 연구출처는 '간호학 저널', '기타 간호학 저널'이, 연구도구는 Lyuvmirsky & Lepper(1999)와 OECD Better Life Index (2012),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과 '미승인'이 각각 50% 차지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조직문화를 고려한 행복측정도구개발과 간호사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 모색 등이 요구된다.

주요어 : 행복, 간호사, 고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nurse' happiness by reviewing literature on happiness of nurses reported in Korea. A total of seven articles were selected as a result of searching for academic papers announced in combination with "nurses," and "happiness" from the database(via NANET, RISS, KSI-KISS, DBpia). Since 2013, a paper on the happiness of nurses has been publish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research sources are "nursing journal" and "other nursing journal", research tools are Lyuvmirsky & Lepper (1999) and OECD Better Life Index (2012), Institutional Review of Board(IRB) "approval" and "unapproved" 50% respectively. Future research seems to require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tools for consider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tervention program for increasing happiness of nurses.

Key words : Happiness, Nurse, Review

1. 서론

최근 우리는 높은 실업률과 소득격차, 각종 가치관의 충돌 등 사회적 원인 등으로 인해 행복함을 느끼기 어

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복(happiness)은 누구나 바라는 것으로 사람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쉽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지만,[1]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

*정회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접수일: 2018년 1월 8일, 수정완료일: 2018년 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5일

Received: January 8, 2018 / Revised: January 23, 2018

Accepted: February 5, 2017

*Corresponding Author: shlee@gntech.ac.kr

Dept. of Nurs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과 태도를 반영하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자아의 잠재력과 인생의 가치 실현으로 인해 얻는 심리적 행복감(psychological well-being)으로 볼 수 있다[2]. 그동안 긍정 심리학자들은 행복의 예측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성격적 요인이 연구되어 왔다[3]. 특히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으로는 건강과 일이 중요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직장인에게 일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4]. 행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며, 건강관련 정보를 잘 활용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잘 마시지 않으며 밥도 잘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등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5],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구성원의 행복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간호사의 업무는 아픈 사람을 돕고 간호하는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소명을 가진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3교대 근무, 감염질환 환자 간호 등 직업상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운동부족,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와 높은 스트레스 등 불건강한 일상생활로 이어져 직업에 대한 불만족이 늘고 있다[6,7]. 이러한 불만족은 간호사의 취업이 다른 학과보다 쉽다는 취업의 용이함 때문에 참고 견디던 학생들이[8], 병원 입사 후 고된 업무환경과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이직함으로써 많은 병원들이 간호 인력을 확보·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직장 내에서의 행복은 그가 속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며, 직장업무환경의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발생하며 최근들어 관심이 늘고 있다[9]. 행복과 생산성은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어[3],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 중 하나는 직장에서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10]. 행복한 직장인은 업무생산성과 직업만족도가 높고 이직율이 낮을 뿐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의 위험도도 크게 낮다는 선행연구[3, 11]를 비추어 볼 때 간호사에 대한 행복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간호사의 행복에 대한 이해는 효과적인 간호인력관리를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간호사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6, 7, 9-13]과 지각된 스트레스[6], 심리적 자원[11], 자기효능감[13] 등의 개인적 요인과 이직의도[7, 10], 업무성과[11], 업무환경[9, 13]

등 조직적 요인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간호사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조직적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의 행복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노력하는 건강의 책임자로서 이들의 행복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중요한 논제로 판단된다. 이에 국내에서 출판된 간호사의 행복관련 논문을 고찰함으로써 간호사 행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중재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자료 선택 및 분석

1) 자료선택

본 연구는 간호사의 행복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고찰 연구로, 주요 검색어(key word)는 ‘간호사’와 ‘행복’ 또는 ‘nurses,’ and ‘happiness’로 발표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보출처는 국회도서관(NA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주)(KSI-KISS), 디비피아(DBpia)의 4개 데이터베이스(Database)자료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출간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문헌 연구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자료선정기준을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과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된 양적 논문으로 하였으며, 배제기준은 질적연구나 문헌고찰을 통해 발표된 논문, 학위논문, 검색엔진을 통해 인쇄되지 않는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보고서와 단행본은 제외하였다.

2)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문헌고찰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분석한 일반적 특성은 출판 연도, 출처(저널), 대상자수, 근무지, 관련변수와 분석도구와 분석방법으로 빈도와 백분율로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개념별 관련성에 대한 결과도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국내에서 ‘간호사’와 ‘행복’ 으로 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국회도서관(NANET) 8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11편, 한국학술정보(주)(KSI-KISS) 6편, 디비피

아(DBpia) 5편, 총 30 편으로 제외기준에 속하는 논문을 제외한 후 최종 8편을 연구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표 1. 연구의 일반적 특성

Variables	Category	n	%
Research year	2008-2012	0	0.0
	2013-2015	4	50.0
	2016-present	4	50.0
Data source	Nursing journal	4	50.0
	Other	4	50.0
Data sample size	<200	1	12.5
	≥200	7	87.5
Workplace	종합병원	3	37.5
	기타	5	62.5
Happiness measurement tool	Lyuvomirsky & Lepper (1999)	3	37.5
	OECD Better Life Index (2012)	3	37.5
	Suh & Koo (2011)	1	12.5
	Fordyce (1998)	1	12.5
Data analysis	Regression	7	87.5
	Others	1	12.5
IRB	Yes	4	50.0
	No	4	50.0

IRB : Institutional Review of Board

간호사 행복에 대한 논문이 출판은 2013년부터로 확인되었으며 ‘2013년-2015년’ 50.0%, ‘2016년 - 현재’ 50.0%를 차지하였다. 연구출처는 ‘간호학 저널’ 50.0%, ‘기타 간호학 저널’ 50.0%, 연구대상자수는 ‘200명 미만’ 12.5%, ‘200명 이상’ 87.5%, 연구도구는 ‘Lyuvomirsky & Lepper(1999)’ 37.5%, ‘OECD Better Life Index(2012)’ 37.5%, ‘Suh & Koo(2011)’와 ‘Fordyce(1998)’이 각각 12.5%이다. 자료분석 방법은 ‘회귀분석’ 87.5%, ‘기타’ 12.5%,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50.0%, ‘미승인’ 50.0%를 차지하였다.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은 Table 2와 같다.

대상 논문의 주요 연구변수는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신체적 증상, 스트레스 유형, 양생, 이직의도, 긍정적 심리자본, 자기효능감,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성과로 개인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일반적 특성은 개인적 요인으로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가 공통적으로 측정되었으며, Nam과 Kwon (2013)은

자녀수, 가족 부양책임을, Park (2014)는 경제적 상태와 건강상태를 측정하였다. 이중 행복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결혼상태, 종교, 자녀수로 나타났다. 조직적 요인은 연구마다 다양하게 측정하였으며 직위, 임상경력, 근무형태, 연봉, 직업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Table2. Summary of Major Results (n=8)

Article (Year)	General Characteristics	Major Variables
Ko (201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 age, marriage*, religion*, education* • OF : position*, department of work, employment type, length of clinical experience*, length of current department clinical experience 	emotional labor(+)
Nam & Kwon (20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 age*, marriage*, religion, children*, duty to support family, education* • OF : position*, length of clinical experience*, shift work, career choice motivation, monthly wage*, number of beds* • HB : smoking, alcohol, self-rated weight*, BMI, exercise, sleep time, breakfast*, regular meals*, food form, chronic diseases, disease names 	professionism(+), turnover intention(+)
Kim (20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 age*, gender, marital status, religion*, education • OF : nursing experience*, area of practice, duty type, position, rotation, turnover, income 	organizational culture(+), turnover intention(+)
Park (20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 age, gender, marriage, 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 OF : job, job type, job burden, job satisfaction 	perceived stress type(+), physical symptoms(+)

*, (+) : related happiness, (-) : unrelated happiness

IF : Individual factor, OF : Occupational factor, HB : Health behavior, BMI : Body Mass Index

표 2.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 계속
Table2. Summary of Major Results - continued (n=8)

Article (Year)	General Characteristics	Major Variables
Ju, Nam & Nam (20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 : age*, marital status*, children (member)*, educational level, duty to support family, religion •OF : type of work*, length of clinical experience*, employment in current hospital, position*, experience of turnover, assigned ward, annual salary*, future work plans* 	emotional labor(+), work environment(+)
Park & Kim (201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 : age*, marital status*, religion*, educational level •OF : position*, clinical career*, hospital type, job satisfaction* 	Yangsaeng(+)
Cha (20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 : gender, age*, religion, marital status*, education* •OF : satisfaction of occupation*, work place, clinical experience*, posi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nursing performance(+)
Song, Heo, An, & Choi (201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 : gender, ag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religion* •OF : working unit*, clinical career*, position*, monthly income* 	emotional labor(+), work environment(+), self-efficacy(+)

*, (+) : related happiness, (-) : unrelated happiness
IF : Individual factor, OF : Occupational factor

IV. 논의

행복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유럽 Durkheim의 연구로부터 유래된 강한 사회학적 전통이 있으며, 그것은 ‘좋은 사회’의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행복의 개념, 행복의 결정요인, 행복공식, 행복수준 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4].

간호사에 대한 행복연구는 2013년부터 데이터베이스(Database)인 국회도서관(NA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주)(KSI-KISS)와 디비피아(DBpia)를 통해 검색되었다. 간호사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는 Lyuvomirsky & Lepper(1999)과 OECD Better Life Index(2012)로 측정이 되고 있었다. Lyuvomirsky

& Lepper(1999)는 주관적인 행복감 척도 4문항으로 적은 문항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OECD Better Life Index(2012)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에 대한 지표로서 생활의 만족도와 풍요로움을 지표화하는 자료로, 주거환경, 소득, 일자리, 공동체 생활, 교육, 환경, 정치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치안, 일과 삶의 균형 등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7]. 선행연구의 행복도구는 간호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직무관련 행복을 평가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간호사의 행복을 이해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행복 안에는 일의 특성과 관련된 행복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사람은 ‘일’ 영역에서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에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행복정도가 높았으며, 행복에 대한 영향정도는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현재 일에 대한 급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4]. 경력간호사 행복 연구[15]에서도 신규 간호사 시기에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을 경력간호사로서 힘들고 어려운 업무환경에서도 긍정적인 형태의 행복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행복상태는 환자간호에 직접적인 영향과 직업에 대한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급여와 근무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소 외에도 직장인 경우 업무관련 보람과 일의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일의 일치정도인 내적인 요소도 중요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간호조직내에서 신규간호사가 경력간호사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지해주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간호사의 행복에 연구된 개인변수와 조직변수는 긍정심리학자들의 연구[3]와 간호사의 행복에 대한 개념분석에서도[16]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특히 간호사의 행복인 경우, 개인적 요소, 근무특성과 근무환경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사행복의 결과는 높은 직무만족도, 개인발전과 전문직간 상호작용을 위한 자원활용의 증가, 높은 직무수행, 적절한 업무량 조정, 건강증진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간호사 행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론적 모델과 개념 틀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16].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성격적 요인들(낙관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

성, 자존감 등)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며, 보다 많은 간호사의 행복연구가 진행되어 간호사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조직성과와 국민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행복과 유사한 개념인 심리적 웰빙, 긍정적 심리,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등은 제외되어 연구결과에 대한 확대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행복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문헌연구로, 총 8편이 분석되었다. 주요 결과로 출판년도, 연구출처,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여부는 비슷한 특성을 보였고, 연구대상자수는 '200명 이상', 연구도구는 Lyuvmirsky & Lepper(1999)와 OECD Better Life Index (2012)가, 자료분석은 회귀분석을 시행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행복과 관련된 주요 연구변수는 개인적 측면의 감정노동, 간호 전문직관, 신체적 증상, 스트레스 유형, 양생, 긍정적 심리자본과 자기효능감이 연구되었으며 조직적 측면에서는 이직의도,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성과가 연구되었다. 유의한 변수로, 일반적 특성의 개인요인은 연령, 결혼상태, 종교, 자녀수에서, 조직적 요인은 연구마다 다양하게 측정되었으나 직위, 임상경력, 근무형태, 연봉, 직업만족도에서 행복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간호사의 행복에 대한 국내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폭넓은 변수와 자료분석방법 등도 필요하겠다. 또한 한국 간호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행복도구개발과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프로그램 등이 개발·적용될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1] M.A.K. Rizvi, & M.Z. Hossain (2017).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Belief and Happines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6(5), 1561 - 1582. doi: 10.1007/s10943-016-0332-6.
- [2] D. Wang(2015). *Influence of work-family facilitation on behavioral performance through occupation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Pusan.
- [3] S.M. Kwon, J.H. Kim (2010). Positive Psychology. HakJisa.
- [4] S.K. Kim, Y.S. Jang, H.S. Choi, & M.S. Cha. *A Study of Determinants and Indicators of Happiness among Korea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8.
- [5] L. Hoggard (2005). *How to be happy*. Seoul : Wisdom house publishing Company.
- [6] Y.S. Park (2014). Perceived Stress Type, Physical Symptoms and Happiness of Nurses: Based on RN-BSN Learner of Distance Education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4), 221-230.
- [7] M.H. Nam, Y.C. Kwon (2013).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Index of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19(3), 329-339. <http://dx.doi.org/10.1111/jkana.2013.19.3.329>.
- [8] J.A. Kim. Nursing Students' Thinking about Employment, *JCCT*, Vol. 3(4). pp.83-92. 2016.
- [9] E.J. Ju, Y.C. Kwon, M.H. Nam (2015).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Work Environment and Emotional Labor on Happiness Index, *J Korean Acad Nurs Adm*, 21(2), 212-222. <http://dx.doi.org/10.1111/jkana.2015.21.2.212>
- [10] K.N. Kim (2014). The Effect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Happiness Index on Turnover Intention among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8(2), 61-72. <http://dx.doi.org/10.12811/kshsm.2014.8.2.061>
- [11] K.J. Cha (2017). Study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bjective Well-being and Nursing Performance, *Human & Society*, 8(3), 973-990. <http://dx.doi.org/10.22143/HSS21.8.3.52>
- [12] H.S. Park, A.J. Kim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Yangsaeng and Happiness among Nurses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1(2), 85-93. <http://dx.doi.org/10.14370/jewnr.2015.21.2.85>
- [13] E.A. Song, M.S. Heo, H.J. An, J.S. Choi, (2017).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on Happiness Index among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 Nurses in Korea,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8(1), 46-54.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1.46>
- [14] J.O. Ko (2013).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Emotional Labor on Happiness in Workpla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4), 250-261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4.250>

- [15] K.W. Lee, Y.O. Suh (2014). A Phenomenological Study on Happiness Experienced by Career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5), 492-504.

<http://dx.doi.org/10.1111/jkana.2014.20.5.492>

- [16] E, Ozkara San (2015). Concept analysis of nurses' happiness, *Nurs Forum*, 50(1), 55-62.
doi: 10.1111/nuf.12099.